

한국인구학 30년: 도전과 과제*

김한곤** · 조영태***

〈한국인구학회〉를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의 인구학은 출산을 비롯하여 사망과 인구이동 그리고 인구센서스 등 인구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사회의 현실을 기술하고 고찰하며 지난 30여년간 독립적인 학문분야로 성장하여왔다. 특히 1960-70년대 높았던 출산율이 경제적인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인구학을 전공한 학자는 물론 인접분야의 많은 학자들이 인구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등 한국사회에서 인구학은 크게 발전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안정되면서 출산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인구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축소되어 한국의 인구학은 이전 시기의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학문적 토양을 잃어왔다. 한편 최근 초저출산율이 다시 사회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인구학과 인구학자에 대한 사회적인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인구학은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과 관심을 충족시키기에 그 토양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6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한국인구학회〉를 축하함과 동시에 학문적 토양의 상실이라는 위기를 자성하고 이를 극복하여 한국사회에서 인구학이 재도약하고 재부흥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현재 처해있는 인구학의 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과 외국의 인구학 관련 토양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인구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단어: 독립적 학문분야, 인구학, 인구학자, 도전, 과제

I.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한국사회는 2005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합계출산율:1.08)을 기

* 본 연구는 한국인구학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2006년 12월에 개최된 한국인구학회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초고가 발표되었다.

**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hgkim@ynu.ac.kr,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053)810-2255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교수, youngtae@snu.ac.kr,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02)740-8880

록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9.3%로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에 달하는 고령사회에 도달하게 되며 18년 후인 해당하는 2024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통계청, 2006). 이러한 인구현상의 급격한 변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인구학자들의 역할과 책임 역시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인구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 있어 지난 30년 동안 인구학자들의 발자취를 살펴봄과 동시에 오늘날 한국인구학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앞으로 <한국인구학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같은 노력은 <한국인구학회> 회원 개개인은 물론이며 학회의 발전 및 국가와 사회발전에 매우 중요한 작업임에 틀림없다.

인구학이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고 대학에 인구학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강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1960년대 후반 무렵이다. 이 시기 인구학 강의의 대부분은 사회학과에서 개설되어 이루어졌다. 그 후 1976년에는 각 대학에서 인구분야를 전공한 교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당시 가족계획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한국인구학회>를 창립하였으며 이듬해인 1977년에는 《한국인구학》이 창간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높은 인구 증가율이 국가 경제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인구증가율 감소를 위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정부의 출산율 감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정책연구프로젝트 수요의 증가 그리고 UN 산하 Population Council의 개발도상국의 출산율 감소를 위한 지원책 등으로 일부 인구학자에 국한되긴 하지만 1970년대 및 1980년대까지 인구관련 학자들은 비교적 수행해야 할 과제들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통계청에서 5년마다 주관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문 및 분석과 정부 각 기관의 인구정책 관련 자문 등으로 몇몇 인구학자들의 활동은 비교적 활발한 편이었다.

한편, 1980년대 인구학자들의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198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약 5년에 걸쳐 주로 미국 쪽에서 인구학을 전공한 박사 5~6명이 국내대학에 전임으로 부임하였다. 그러나 그 후 1990년대부터 2006년 현재까지 약 15년 동안 인구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구학자는 10명 내외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2006년 현재 전국에 사회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40개 대학 가운데 인구학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학과는 19개 학과에 불과하며 그 가운데 인구학 전공 전임교수가 있는 학과는 10개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며 나머지 사

회학과에는 비록 인구학 관련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비인구전공 학자들이 인구학 강의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현재 <한국인구학회>에 등록된 개인회원 수는 122명이며 단체회원으로 등록된 단체는 59개이다. 지난 10년간 <한국인구학회> 등록 회원수의 변화는 매우 미미한 편이며 그나마 <한국인구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학회의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는 회원은 거의 정해져 있는 편이다. 전기와 후기에 걸쳐 일년에 2회 개최되는 <한국인구학회>에 참석하는 회원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경우 약 50명 내외의 그리고 지방에서 개최되는 경우 30명 내외의 회원이 참석하고 있다. 즉 인구학회 소속 회원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회원 역시 몇몇에 국한되어 있다.

더군다나, 통계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공립연구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사기업 분야 등에 종사하는 인구관련 학자는 거의 전무하다.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자문활동을 제외하면 중앙정부 특히 지방정부에서 인구관련 전문가의 자문활동은 다른 전문가들의 활동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한국 사회에서의 인구학은 위기상황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학회 차원에서 인구학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많지 않았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인구학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인구학을 전공하는 후학들이 줄어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회 차원에서 인구학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인구학이란 학문이 한국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무척 중요하고 필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이 관련 분야의 공공 및 사적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또한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뼈아픈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인구학 및 인구학자들이 처해 있는 현 실태를 점검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실태 점검을 통하여 한국사회에서 인구학이 처해있는 문제점 및 위기상황을 분석하여 인구학의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 개설 과목 및 인구학자들의 활동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국내 인구학 관련 문제점 및 과제를 알아본다. 셋째, 외국의 인구학 및 인구학자들의 활동을 알아본다. 넷째, 국내의 인구학 저변 확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이용된 자료는 크게 국내 자료와 국외 자료로 구분된다.

1. 국내 자료 및 연구방법

국내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구학회에 등록된 회원 명단, 통계청에서 발주하여 지난 3년간 한국인구학회에서 집필한 <인구대사전> 집필진 명단 및 아시아 인구학자 목록, 그리고 대학 및 연구원에 종사하고 있는 석사급 이상의 연구원 및 교수진 명단 등을 활용한다. 둘째, 현재 국내 각 대학 및 대학원에서 개설되어 있는 인구학 관련 강의과목 목록을 조사한다. 셋째, 2006년 8월 현재까지 《한국인구학》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여 주제별 및 저자별로 분류 분석한다. 넷째, 인구 전공자들의 채용 현황 및 일자리 현황을 파악한다. 다섯째, 인구학 관련 연구기금 현황 및 연구지원 기관 등을 분석한다.

2. 국외 자료 및 연구방법

국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자료 및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 관련 해외 주요 저널에 실린 논문을 주제별로 분리하여 최근 동향을 파악한다. 둘째, 외국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분류 분석하며 인구학 관련 강좌 개설 수 및 진로지도 현황을 알아본다. 셋째, 외국의 인구학 전공자들의 취업 현황 및 일자리를 파악하고 분석한다. 넷째, 국제인구학회에 참여하는 인구학자들의 소속기관의 다양성 및 연구기금 지원기관을 분석한다. 다섯째, 해외

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인구학을 전공하고 있는 인구학자들을 정리 분석한다.

III. 현황과악

1. 국내 현황

1) 인구학 관련 학자 현황

(1) 인구학회 활동 회원 현황

〈표 1〉은 2006년 현재 〈한국인구학회〉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회원들의 현황이다. 전체회원 122명 가운데 남성과 여성회원의 비율은 각각 73%와 27%로서 남성회원의 비율이 여성회원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직업별로 보면 교수가 65%로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연구원 14% 및 공무원 8% 순이다. 회원들을 인구학 전공과 비전공으로 분류해 보면 인구학 전공자는 23명으로 전체회원의 20%에 불과하며 나머지 회원들은 인구학이 아닌 다른 학문분야의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구학자들의 절대적 숫자가 적은 편이다. 〈한국인구학회〉에서의 활동이 적극적인 회원은 30명으로 24%를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76%의 회원들은 학회활동이 소극적인 편이다.

〈표 1〉 인구학회 등록회원 현황

		N	%
성별	남	89	73.0
	여	33	27.0
	계	122	100.0
직업	교수	80	65.0
	연구원	17	14.0
	공무원	10	8.0
	기타	15	13.0
	계	122	100.0
인구학 전공 유무	전공	23	20.0
	비전공	99	80.0
인구학회 활동성	적극적	30	24.0
	소극적	92	76.0

자료: 한국인구학회, 2006

(2) 아시아 인구학자 등록 회원 현황

<표 2>는 2005년 현재 한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구관련 학자들 가운데 아시아 인구학자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현황이다. 아시아 인구학자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인구관련 학자들을 성별로 분류해 보면 남성과 여성은 각각 75%와 25%를 나타내고 있다. 직업에 있어서는 교수 67%, 연구원 22%, 공무원 8%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위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사회학 학위소지자가 61%로서 가장 많으며 인구학 및 경제학은 각각 5%를 나타내고 있다. 연령에 있어서는 50대가 49%로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40대 25%, 60대 이상 19% 그리고 30대 7%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구관련 학자들은 젊은 학자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50대 이상 연령층의 학자들이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학위취득연도를 보면 1980년대가 41%로서 가장 많았으며, 1990년대 29%, 그리고 1970년대와 2000년 이후는 각각 15%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자료로 미루어 보아 인구학 전공의 젊은 학자들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2> 아시아 인구학자 목록에 수록된 국내 인구학자 현황

		N	%
성별	남	44	75.0
	여	15	25.0
	계	59	100.0
직업	교수	39	67.0
	연구원	13	22.0
	공무원	5	8.0
	기타	2	3.0
	계	59	100.0
전공분야	사회학	36	61.0
	인구학	3	5.0
	경제학	3	5.0
	기타	17	29.0
계	59	100.0	
연령	60대	11	19.0
	50대	29	49.0
	40대	15	25.0
	30대	4	7.0
	계	59	100.0
학위취득연도	70년-	9	15.0
	80년-	24	41.0
	90년-	17	29.0
	2000년-	9	15.0
	계	59	100.0

자료: Asian Demographers, 2005

<표 3> 인구통계사전 집필진 현황

		N	%
국내외	국내	66	92.0
	국외	6	8.0
	계	72	100.0
직업분류	교수	42	58.0
	연구원	20	28.0
	공무원	7	10.0
	기타	3	4.0
	계	72	100.0

자료: 한국인구학회, 2006

(3) 인구대사전 집필진 현황

<표 3>은 한국인구학회가 통계청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지난 약 3년간에 걸쳐 집필해 온 <인구대사전> 작업에 집필진으로 참여한 인구관련 학자들 현황이다. 전체 참여 학자 97명 가운데 국내 인구관련 학자는 91명으로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6명은 한국 출신의 재외 인구학자들로 8%를 나타내고 있다. 직업을 분류해 보면 교수가 58%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연구원이 28%를 차지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인구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넓게 잡아도 120명 내외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학자들은 50명이 채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인구학회> 활동 및 인구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20~30명 안팎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구학회의 인적 구성이 양적인 면에서 얼마나 열악한가를 방증하고 있다.

2) 국내대학 사회학과 및 인구학 개설 강좌 현황

국내대학에서 인구학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학과는 보건학, 지리학, 경제학과 등이 있지만 이러한 학과들이 개설하는 인구학 관련 강좌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그나마 인구학 관련 강좌를 상대적으로 많이 개설하고 있는 유일한 학과는 사회학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전국 40개 대학의 사회학과 현황 및 인구학 관련 강좌 개설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 <표 4>이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에 사회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40개 대학 가

<표 4> 국내대학 사회학과 현황 및 인구학 관련 강좌 개설 현황

		N	%
재단유형	국·시립	12	30.0
	사립	28	70.0
	계	40	100.0
지역	수도권	19	48.0
	지방	21	52.0
	계	40	100.0
인구관련과목개설	개설	19	48.0
	미개설	21	52.0
	계	40	100.0
대학원개설	개설	9	28.0
	미개설	31	72.0
	계	40	100.0

주: 한국교원대학 일반사회교육전공은 제외되었음
2개 대학원(서울대 보건대학원, 영남대 대학원 보건학과) 제외

운데 1개의 시립을 포함한 국립대학은 12개 대학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립대학은 28개 대학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이 19개 대학으로 48%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방소재대학은 21개로 52%를 차지 하고 있다. 인구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19개 대학으로 48%이며 미 개설 대학은 21개 대학의 52%이다. 한편 대학원에서 인구학 관련 과목을 개설 하고 있는 곳은 28%로 11개 대학원이며 미개설대학은 29개로서 72%를 나타내 고 있다.

<표 5>는 국내대학 사회학과 현황과 인구학관련 강좌개설 현황을 보다 더 자 세하게 정리한 것이며 여기에는 학부에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전공이 포함되 어 있으며 대학원에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가 포함되어 있다. 표를 중심으로 인구학 관련 강좌의 학부 및 대학원 개설 현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에 소재하는 주요대학 가운데 연세대학교는 학 부 및 대학원에 인구학 관련 강좌가 하나도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고려대학교 와 이화여자대학교는 학부에 인구관련 강좌가 한 개씩 개설되어 있을 뿐 대학 원에는 인구학 관련 강좌가 전무하다. 중앙대학교와 경희대학교는 학부는 물론 대학원에도 인구학 관련 강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 지방에 소재한 국립 거점 대학 가운데 부산대학교는 학부 및 대학원에 인구관련 강좌가 없으며 전남대학 교, 경상대학교, 충북대학교 및 제주대학교 역시 인구관련 강좌가 전혀 개설되 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실태는 사회학내에서 인구학 분야가 처해 있는 현실 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주요 대학들 가운데 인구학 관련 강좌

<표 5> 국내대학 사회학과 현황과 인구학관련 강좌개설 현황

학교명	주소	인구학 강의	
		학부	대학원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경기도 부천	X	X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강원도 춘천	인구와 사회	사회인구연구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경남 마산	X	X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대구 북구	인구와사회 특수대학: 노인문제와 노인정책	노인문제연구 노년사회학 연구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경남 진주	X	X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서울 동대문구	X	X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대구 달서구	인구문제→인구문제 나이듦의 사회학	X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서울 성북구	인구와 도시	X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서창캠퍼스)	충남 연기	X	X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서울 성북구	X	X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경북 경산	인구와 사회	인구연구
대구가톨릭대 정보사회학과	경북 경산	X	X
덕성여대 사회학과	서울 도봉구	X	X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서울 중구	인구와 가족	인구학연구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부산 서구		인구분석론
배재대학교 사회학과	대전 서구	인구와 사회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부산 금정구	X	X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서울 마포구	인구와 발전	인구학, 형식인구학특강, 인구학특수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보건대학원	서울 관악구	인구와 환경	인구연구, 보건인구학개론, 보건인구학방법론, 인구학세미나, 출산력분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서울 동대문구	인구가족연구	X
성공회대 사회학전공	서울 구로구	X	X
성균관대 사회학전공	서울 종로구	인구와 사회	인구 연구
송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서울 동작구	X	X
아주대학교 사회학전공	경기도 수원	인구분석	X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서울 서대문구	X	X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보건학과	경북 경산	인구사회학	인구학세미나, 노년학세미나, 인구보건론, 보건인구학 세미나
울산대학교 사회학과	울산 남구	X	X
이화여대 사회학과	서울 서대문구	인구와 사회	X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광주 북구	X	X
전북대학교 사회학전공	전북 전주	인구와 사회	인구학연구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제주도 제주	X	X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서울 동작구	X	X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경남 창원	인구와 가족	
청주대학교 사회학과	충북 청주	X	X

학교명	주소	인구학 강의	
		학부	대학원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대전 유성구	인구와사회 도시사회연구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충북 청주시	인구학	X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강원도 춘천	인구와 환경	X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서울 성동구	인구의 이해	인구 및 지역연구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학부)	충북	인구와 사회	인구와 발전, 도시농촌사회학특강,
일반사회교육전공(대학원)		도시와 농촌 가족과 사회	가족사회학특강 교육대학원: 인구와 발전, 가족과 생애, 도시농촌사회이해
강남대 교양학부	경기도	X	X
서울대 보건대학원	서울시	X	인구학 세미나, 보건인구학개론, 보건인구방법론, 출산력분석
서울대 국제대학원	서울시	X	X

자료: 해당대학 학과 및 대학원 행정사무실, 2006

가 개설되지 않는 이유는 사회학과에 재직중인 사회학 전공 교수들의 인구학 분야에 대한 인식도가 낮거나 인구학의 학문적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사회학 분야의 타 전공 교수들로 하여금 인구학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 뿐만 아니라 그나마 인구학 전공 전임교수가 재직하고 있던 대학마저 인구학 전공자가 퇴임을 하거나 자리를 옮기는 경우 그 자리에 인구학 전공 교수를 충원하지 않는 사례가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연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내에 인구학 관련 강좌가 여러 개 개설되어 활발하게 강의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인구학 전공대학원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며 지방에 소재하는 영남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역시 인구학 관련 강좌들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은 인구학의 저변 확대를 위한 좋은 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인구학회지 게재 논문 분석

〈표 6〉은 1977년 창간호부터 2006년 8월까지 한국인구학회가 발간하는 《한국인구학》에 게재된 논문을 유형 및 시기별로 요약 정리한 것으로 총 401편이다. 게재된 연구논문 가운데 연구논문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 논문의 87.3%를 차지하고 있다. 발표논문 및 연구노트 4.0%, 서평 1.7%, 통계자료 2.7% 그리고 권두언을 포함한 기타 14.2%를 나타내고 있다.

<표 6> 게재물의 유형 및 시기별 구성분포

	1977-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2006	전체
연구논문	8 (29.6)	26 (81.3)	74 (87.1)	62 (93.9)	66 (95.7)	81 (92.1)	33 (97.0)	350 (87.3)
발표논문/ 연구노트	13 (48.2)		2 (2.4)	-	-	1 (1.1)	-	16 (4.0)
서평	-	1 (3.1)	-	-	1 (1.5)	4 (4.6)	1 (3.0)	7 (1.7)
통계자료	-	-	3 (3.5)	4 (6.1)	2 (2.9)	2(2.3)	-	11 (2.7)
기타 (권두언, 동정 등)	6 (22.2)	5 (15.6)	6 (7.1)	-	-	-	-	17 (4.2)
전체	27 (100.0)	32 (100.0)	85 (100.0)	66 (100.0)	69 (100.0)	88 (100.0)	34 (100.0)	401 (100.0)

자료: 김두섭·박효준(2005) 재구성, 2006

<표 7> 연구논문의 주제 및 시기별 구성분포

	1977-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2006	전체
인구규모 및 특징	1 (12.5)	2 (7.7)	6 (8.1)	9 (14.5)	14 (21.2)	20 (24.7)	1 (2.9)	54 (15.4)
출산력	1 (12.5)	3 (11.5)	12 (16.2)	6 (9.7)	2 (3.0)	1 (1.2)	2 (5.9)	27 (7.7)
사망력	2 (25.0)	2 (7.7)	11 (14.9)	3 (4.8)	4 (6.1)	3 (3.7)	3 (8.8)	28 (8.8)
인구이동	0	1 (3.9)	4 (5.4)	3 (4.8)	2 (3.0)	3 (3.7)	0	13 (3.7)
혼인과 가족	0	4 (15.4)	3 (4.1)	7 (11.3)	7 (10.6)	8 (9.9)	7 (20.6)	36 (10.3)
노동력	0	3 (11.5)	13 (17.6)	5 (8.1)	6 (9.1)	21 (25.9)	7 (20.6)	55 (15.7)
인구정책 및 일반이론	3 (37.5)	6 (23.1)	11 (14.9)	9 (14.5)	2 (3.0)	4 (4.9)	7 (20.6)	42 (12.0)
국외 지역연구	1 (12.5)	2 (7.7)	9 (12.2)	13 (21.0)	16 (24.2)	9 (11.1)	2 (5.9)	52 (14.8)
국내 지역연구	0	2 (7.7)	1 (1.4)	2 (3.2)	7 (10.6)	10 (12.4)	2 (5.9)	24 (6.8)
인구자료 및 기타	0	1 (3.9)	4 (5.4)	5 (8.1)	6 (9.1)	2 (2.5)	2 (5.9)	20 (5.7)
전체	8 (100.0)	26 (100.0)	74 (100.0)	62 (100.0)	66 (100.0)	81 (100.0)	34 (100.0)	351 (100.0)

자료: 김두섭·박효준(2005) 재구성, 2006

연구논문을 주제 및 시기별로 정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는 2006년 8월까지 《한국인구학》에 게재된 연구논문 351편의 주제별 구성분포의 변화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주제별로 보면 노동력과 인구규모 및 특징에 관한 논문들이 55편 및 54편으로 각각 15.7%와 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국외 지역연구 14.8% 그리고 인구정책 및 일반이론 논문으로 12%를 나타내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출산력에 관한 논문이 1980년대 말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인구정책 및 일반이론에 관한 연구논문 역시 1980년대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표되었으나 그 후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관련 논문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가 현재 처해 있는 초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노동력에 관한 논문들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인구학 전공자의 채용 현황 및 일자리 분석 (2001~2006)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인구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5명 미만에 불과할 정도로 인구학자의 공급은 매우 미미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그 당시 인구학자들에 대한 사회적 수요 부족 및 낮은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즉 인구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으며 또한 1990년대 들어오면서 그 이전까지 출산력 감소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던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은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인구현상에 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인구관련 예산이 축소되면서 인구학자들에게 유리하지 않게 작용한 사회적 여건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인구현상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특히 2003년 이후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정부 및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최근 2001년부터 2006년 8월 현재까지 한국인으로서 인구학 관련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약 10여명 남짓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들 가운데 국내에서 인구학 관련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2명 정도이고 나머지 8명은 모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서울지역 대학에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1명은 대학부설 연구소의 전임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5명은 정부 산하 국책 연구원에 연구원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은 미국소재 대학에서 박사 후 과정에 있다. 물론 본 연구진이 <한국인구학회>와 <미국인구학회> 그리

고 IUSSP 등 주요 인구관련 학회에서 논문발표 등 활동을 하고 있는 신진 학자들만을 고려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보다 실제 인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더 많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이 미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구학 신진인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구학 관련 전공 학자들의 숫자는 다른 학문 분야의 학위취득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고 하겠다.

5) 인구관련 연구기금 지원 기관 현황 및 분석

인구학 관련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구관련 연구기금을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들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매년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걸쳐 학술연구를 위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 공동연구, 학제간 연구 및 연구소 차원의 연구를 공모하여 심사후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2) 중앙정부 각 부처 및 산하 기관

중앙정부의 각 부처 가운데 특히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관련 부서 및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본부의 인구가족과가 인구연구자들이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된다. 또한 건강증진기금사업단 및 질병관리본부 등은 사망과 질병에 관한 연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곳이다.

(3)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232개 기초자치단체 역시 인구관련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지만 현재까지 사회복지학, 행정학, 지역개발학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학 전공자들의 연구 참여는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학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인구학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인구학자들 역시 일정 부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분야에 자문을 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학자들은 오히려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내지 행정분야 전문가들의 참여율이 훨씬 높은 것이 현실이다.

(4) 각 지역 광역자치단체 산하 연구원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들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소속 지역 행정기관들은 필요한 연구용역을 해당지역 연구원에 맡기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인구학자들이 연구비를 신청하고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으로 각 지역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연구원을 들 수 있다. 2006년 8월 현재 전국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비롯하여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1개씩의 연구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단지 광주 및 전남지역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그리고 대구 및 경북지역은 대구경북연구원으로 통합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들 연구원의 명단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등이다.

(5) 대기업

GM과 같은 다국적 기업에서는 인구전문가들을 일찍부터 고용하여 세계 자동차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는데 인구학자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왔다. 특히 시장의 장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응용인구학 분야의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 사회의 거대 기업그룹 뿐만 아니라 대기업 역시 인구학자들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업 CEO들의 인구학자들의 전문지식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학에 관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한국인구학회> 차원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2. 국외현황

다른 나라의 인구학이 그 나라의 규모나 특징에 비해서 얼마나 발달하였는지 고찰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인구학이 처해있는 현실을 짚어보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일 그 나라의 경제규모, 문화적 가치관, 인구학의 역사 등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다면 국내 인구학과의 비교 연구에 더없이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의 현황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아쉽게도 주로 미국의 인구학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다. 하나는 정보 접근의 용이성 차원에서 미국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인데, 특히 영어의 사용과 웹을 통한 정보 접근성이 다른 어떤 나라들에 비해 가장 수월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권의 인구학은 대부분 자국어로 된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접근에 제한이 많아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못했다. 다른 이유는 최근 국제 인구학 전반에 걸쳐 미국의 학문적 재정적 영향력이 다른 어떤 나라들에 비해 크기 때문에, 국내 인구학의 학문적 성과를 국제 인구학과 비교하는데 있어 미국의 인구학이 가장 대표적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국제인구학회지 최근 동향분석

국제 인구학의 최근 학문적 경향을 파악하는데 있어 가장 좋은 자료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제인구학회지들이다. 여타의 학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인구학 역시 시대에 따라서 또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학자들이 주로 연구하는 주제가 변화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 학문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제학술지라 할 수 있는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PDR), Population, 그리고 Demography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수록된 총 427편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주된 연구영역과 대상지역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연구영역은 수록된 논문의 수만큼이나 다양하였지만, 가능한 한 전통적인 인구학의 학문영역이라 할 수 있는 출산력, 사망력 및 건강, 인구이동, 그리고 어디에도 분류하기 어려운 기타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최근 많은 논문들이 위 영역들을 넘나드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예컨대, 이민자들의 건강을 주제로 하는 경우 인구이동에도 사망력 및 건강에도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에서 주로 사용하는 종속변수가 무엇인가에 따라 주된 영역을 결정하였다.

〈표 8〉은 세 개의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다. 지난 6년간 발표된 427편의 학술 논문들 가운데 234편이 Demography에, 97편이 PDR에 그리고 96편이 Population에 수록되었다. 세 학술지 모두 45% 이상의

<표 8>각 학술지 별 수록 논문의 연구주제

학술지	학술지 주제별				전체
	출산력	사망력/건강	인구이동	기타	
Demography	106(45.3)	59(25.2)	43(18.4)	26(11.1)	234(100.0)
PDR	49(50.5)	28(28.9)	6(6.2)	14(14.4)	97(100.0)
Population	46(47.9)	21(21.9)	12(12.5)	17(17.7)	96(100.0)
Total	201(47.1)	108(25.3)	61(14.3)	57(13.4)	427(100.0)

주: ()는 %

연구 논문들이 출산력을 소재로 다루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유럽의 저출산 관련 내용은 물론 아직도 높은 출산률이 사회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었다. 특히 Demography에는 출산력과 함께 가족인구학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다루어졌는데, 본 연구에서 이를 출산력과 같은 범주에 포함시켜 그 상대적인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력 다음으로 세 학술지 모두에서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사망력과 건강인데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그래도 약 20-30% 정도의 논문들에 이 주제에 관한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PDR을 제외하고 인구이동과 관련한 논문들의 상대적인 빈도가 뒤를 이었다.

한국의 인구학 흐름과 외국의 그것을 비교하면 어떠한 차이가 발견될까? 앞서 《한국인구학》을 대상으로 게재논문 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총 10개의 분류기준을 사용하였다. 비록 똑같은 분류기준은 아니지만 유사한 8개의 분류기준을 사용하여 3개 국제학술지에 최근 6년 간 게재된 논문들의 주제를 분류하면 다음 <표 9>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구학》의 주제 구분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직접적인 비교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흥미로운 비교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인구학》에서는 최근으로 올수록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도 불구하고 출산력에 관한 연구논문의 편수가 다른 주제에 비해 그리 많지 않았다. 또한 최근 건강 불평등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주된 연구 영역으로 하고 있는 인구학에서 《한국인구학》을 통해 발표한 관련 연구논문의 수도 매우 적은 편이다. 하지만 위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출산력과 사망력/건강은 국제적인 학술지에서 여전히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요 연구영역임이 확인되고 있다. 전체 427편의 대상 연구논문 가운데 출산력은 약 20%, 사망력과 건강은 약 23%의 점유율을 보였고, 이를 편수로 하면 각각 86편과 100편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인구학》에 출산력 관련 논문이 전체 115개의 게재논문 가운데 3편에 불과했고(<표 7>참조), 사망력도 6

<표 9 > 연구주제별 논문 편수

(단위: 편수, 비율)		
주제별	논문편수	비율
인구학 방법론 및 자료	34	8.0
출산력	86	20.1
사망력과 건강 (Reproductive Health 포함)	100	23.4
인구이동	46	10.8
혼인과 가족	78	18.3
노동력	5	1.2
인구정책 및 일반이론	18	4.2
기타주제(환경, 인종, 젠더 등)	60	14.1
계	427	100.0

편에 불과했던 점과 비교하면 한국의 인구학과 국제 인구학의 흐름이 서로 같지 않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위 세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을 확인해 보았다. <표 10>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역 확인이 가능한 총 227편의 논문이 대상이 되었다. 대륙별로 확인했을 때 가장 많이 연구의 대상이 된 지역은 아시아와 미국/캐나다 등 북미지역으로서 전체 논문 가운데 각각 29.1%를 점유하였다. 그 다음이 유럽지역으로서 22.6%였다. 아시아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관한 연구가 많이 게재되었다.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은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인데 이는 중국 사회와 인구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1>은 위 227편의 논문을 국가별로 구분한 것인데, 가장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된 국가는 미국으로서 62편의 논문이 지난 6년간 Demography, PDR 그리고 Population에 게재되었다. 중국은 총 19편의 논문에서 연구 대상국가가 되었는데 앞선 표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연구가 많았던 것이 대부분 중국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국가들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자주 등장한 국가는 일본인데, 모두 3편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다음으로 2편의 글이 대만에 관해 등장하였다. 한국에 대한 논문은 단 1편이었는데, Population에 실린 논문으로서 출생시 남녀 성비불균형에 관해 한양대학교의 김두섭 교수가 발표하였다.

과거 한창 한국의 가족계획이 국제사회의 관심이 되었던 1980년대에 많은 논문들이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너무나 소수의 논문이

<표 10> 연구대상 지역별 게재 논문 편수

(단위: 편수, 비율)

지역별	논문편수	비율
Africa	35	15.2
Asia	67	29.1
- East	28	
- South East	25	
- Middle East	4	
- Central	3	
Europe	52	22.6
North America(미국, 캐나다)	67	29.1
Latin America(중남미)	9	3.9
계	227	100.0

발표되고 있는데 이는 다음 두 가지 점을 시사한다. 먼저 한국의 저출산을 비롯한 인구현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크지 않음을 반영한다 할 수 있다. 과거 가족계획의 경우 한국의 사례가 매우 성공적인 사례였던 것으로 소개되어 있으므로 'World Fertility Survey' 혹은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등 영문으로 제작되어 국제적으로 가용한 자료들이 많이 제작되어 한국의 인구학자는 물론 외국의 인구학자들도 한국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였다. 최근에는 한국이 비록 아주 낮은 합계출산율과 빠른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것이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라 할 수 없고, 동시에 다른 나라의 인구학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영문으로 제작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이 국제사회에서 한국 인구현상에 대해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이유라 할 수 있다. 둘째로 한국의 인구학자들이 그동안 한국의 인구현상을 외국에 소개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재하였던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한국의 인구현상을 외국에 소개하는 일 자체는 그다지 학문적 중요성이 크지 않다. 하지만 한국의 인구현상을 국제적 인구학 담론과 결부지어 소개하는 일은 인구학 일반에 큰 학문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한국의 인구학자들이 최근 학문적 기여의 수준이 높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사회에 관한 논의를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정당화는 그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위에서 소개한 외국의 한국 인구현상에 대한 관심 부족 역시 궁극적으로는 한국 인구학자들의 학문적 노력이 부족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다.

<표 11> 연구 대상 국가별 논문 편수

국가별	논문편수(총 227국가)
미국	62
프랑스	30
중국	19
인도	14
영국	10
방글라데시	6
멕시코, 케냐, 캐나다, 세네갈	각 5
브라질, 인도네시아	각 4
러시아, 베트남, 일본, 코트아부에	각 3
감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팔, 대만, 독일, 말라위, 이스라엘,	각 2
짐바브웨, 카메룬, 콜롬비아, 태국,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각 1
한국과 북한을 비롯한 20개 국가	각 1

2) 미국 인구학 전공자들의 취업 현황 분석

앞서 한국에서 최근에 인구학을 전공한 신진 학자들의 취업 현황을 알아보았다. 다음 <표 12>는 미국 인구학회 홈페이지의 구인란에 등장한 2005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인구학 전공자들을 모집하는 기관과 모집 인원을 정리하고 있다. 먼저 전체를 살펴보면 총 54개의 인구학 관련 전공자가 모집되었는데 미국에 인구학 전공으로 박사를 수여하는 학교의 수와 인구학 전공으로 박사를 취득하는 사람들의 수를 고려할 때 54개의 취업 자릿수는 한국과 비교할 때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다. 물론 한국에서 인구학 전공자를 선별하여 모집하는 연구소나 학교가 거의 없음을 생각하면 미국의 인구학 전공자들의 취업 현황이 더욱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장의 규모와 국가에서의 관심사를 함께 고려한다면 미국 역시 인구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취업 상황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인구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학교 및 연구소의 전임교수직은 10개 밖에 되지 않아, 전체 일자리의 약 20%에 그쳐 미국 역시 신진 인구학자들의 학교취업 상황이 한국에 비해 크게 좋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이 표에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인구학 분야를 주전공으로 하지 않고 인구학 내에서 주로 다루는 연구 주제인 인종, 건강 등 인구학 전공자가 지원 가능한 자리를 모두 고려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이는 미국 사회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 미국 학계에서 가장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노동시장이 활발한 시기인 2005년 10월의 구인란을 보면, 전체 225개의 자리 가운데 약 15%에 해당하는 34개의 자리가 건강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표 12> 미국 내 인구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의 취업 outlet 현황

기관유형		학교/연구소	일반연구소	기관	기타	계
직업유형	연구원	0	6	9	1	16
	정교수	8	2	0	0	10
	강사	3	0	0	0	3
	기관임직원	2	3	2	7	14
	기타	5	2	1	3	11
전체		18	13	12	11	54

자료원: 미국인구학회 홈페이지의 Employment Bulletin (2005년 1년간)

모집하였다. 물론 건강을 연구하는 학자가 반드시 인구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구학 전공자가 최소한 지원 가능한 자리임을 고려한다면 인구학 관련 취업 상황이 미국은 그다지 나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인구학 국제학술지

한국의 인구학이 지난 10여 년간 침체기에 빠져들게 된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들 중 하나는 바로 국제 인구학계에서 한국인구학의 활동이 미진했던 것이다. 앞서 인구학 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3개의 국제학술지 분석에서도 드러났지만, 2000년 이후 한국에 대한 연구가 발표된 적은 단 한 번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인구학이 국제 인구학 분야에서 변방(邊方)으로 밀려나와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맥락을 가장 잘 표현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곳이 한국 내부이고, 그렇다면 한국의 인구학 학술지가 인구학 연구업적을 발표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곳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인구학이 학문으로서 이론을 형성하고 일반화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절대로 한 지역의 맥락이 그 지역의 내부에서만 논의되는 것으로 끝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인구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는 위에서 소개한 3개 이외에도 다양하며, 그 수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인구학 전문 학술지 이외에 인접 분야의 학술지를 모두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인구현상을 연구한 논문들을 발표할 수 있는 국제 학술지는 그 수가 많다. 아래의 <그림 1>은 인구학 분야에서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학술지 이외에 최근 독자의 수가 늘고 인용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국제 학술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많은 학교에서 업적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SCI)'에 등재되어 있는 학술지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앞서 분석에 사용되었던 Demography, PDR, 그리고 Population에 비해 채택율이 다소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채택율이

<그림 1> 인구학 전문 국제학술지: 그동안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 않은
학술지를 중심으로

-
-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SSCI)
 - Social Biology (SSCI)
 - Demographic Research (online journal, SSCI)
 - Asia-Pacific Population Journal
 -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 Population Review
 -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SSCI)
 - International Migration (SSCI)
 -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SSCI)
 - Population and Environment (SSCI)
 - Asian Population Studies
 -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SSCI)
 -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SSCI)
-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서 학술지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3. 종합비교

지금까지 학술지 분석과 인구학 전공자의 취업실태 분석을 통해 한국과 국제 인구학의 학문적 흐름과 위치 등을 비교하였다.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의 상황이 존재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국제적인 인구학 환경과 비교하는데 당연히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최대한 비교 가능한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이는 특히 한국의 인구학이 지난 10여 년간 왜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먼저 한국의 인구학은 지나치게 “사회학”의 세부 분야화 되어 인구학의 정체성(identity)을 크게 상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학술지 게재 논문들의 주제 분석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의 인구학은 최소한 지난 10여 년간 인구학의 주된 연구 분야인 출생, 인구가동, 사망, 그리고 인구학 방법론 등의 주제를 대상으로 삼기 보다는 노동, 가족, 여성 등 직접적으로 사회학의 세부 주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주제들이 전혀 인구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최근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 고령화, 외국인 수의 증가, 조기 유학과 관련한 인구유출, 사망력과 건강에 있어서의 사회경제적 양극화 등 인구학의 직접적인 연구 대상과 관련한 연구 논문의 수가 크게 적을 것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인구학이 그동안 인구학으로서의 정체성을 크게 놓

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학 전공자의 취업관련 현상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먼저 인구학 전공자의 수가 극히 희박하다. 어떠한 학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학위를 마친 뒤에 연구소이건 학교이건 갈 곳이 없다면 그 학문을 전공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인구학이 인구학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인구학을 전공으로 하고자 하는 학문 후속세대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설사 인구학을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갈 곳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처럼 인구학 내부에서도 그 정체성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학문 이외의 분야, 예컨대 기업이나 정부에서 인구학의 학문적 혹은 실용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기대할 수 없었다. 그나마 그 수도 적은데, 인구학을 전공한 학문 후속세대가 인구학 전공을 그대로 살려 나갈 수 있는 취업의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비록 인구학을 전공하였어도 전공 분야를 인구학 보다는 다른 인접 학문 분야로 설정하고,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때도 인구학의 전통 영역보다는 사회적 관심사가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된 것이다.

그동안 저출산력을 비롯하여 한국 사회는 인구와 관련된 수많은 흥미로운 현상들을 경험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경제 혹은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 속에서 인구 현상도 큰 변화를 경험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인구학 내부에서의 학문적인 분석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져 오지 못하였다. 특히 이들 인구현상을 학문적으로 분석하여 한국만이 아니라 인구학 일반 이론에 적용하여 인구학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가려는 학문적인 기여의 수준이 너무나도 일천한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물론 사회과학의 다른 분야도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국제 학술지를 통해 한국의 인구현상을 소개하고 학문적 기여를 하려는 노력이 거의 부재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거의 대부분의 학문 분야에서 국제 교류가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에 한국의 인구학은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측면이 다분하며, 이를 극복하려는 인구학 내부에서의 시도가 너무나 미약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인구학은 독립적인 학문 분과로서 스스로의 학문적 정체성을 크게 상실했으며, 그로인해 인구학 학문 후속세대의 등장과 발전이 둔화되었고, 국제적 학문 교류에 대한 의지도 빈약한 상태로 한국 내부의 현실에 안주해 온 것이다.

IV. 문제점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인구학 전공자들의 입지는 매우 좁은 것이 현실이며 인구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고려 해 볼 때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저평가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련 문제점들을 간략히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이후 인구학 전공자들이 타 학문 영역 전공자들에 비해 양적 성장이 매우 적은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인구학 전공자들의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았던 점과 무관하지 않으며 인구학의 저변확대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기성 인구학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학에서의 인구학 관련 교과목의 개설이 매우 적은 점을 들 수 있다. 전국 200여개의 4년제 대학 가운데 사회학과 학부과정이 있는 곳은 40개 대학인데, 이들 중 단지 19개 대학에서 인구학 관련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각 대학에서 인구학이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학과 내에서도 인구학이 꼭 개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학문으로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한국인구학회>에서는 매년 전기 및 후기 등 2회에 걸쳐 정기학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구학회의 정기학술대회에 발표되는 논문은 10편미만의 소수에 불과하며 학회 참석 인원 역시 서울지역 개최시 약 40~50명 그리고 지방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30명 내외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학회>에서 개최하는 전기 및 후기 두 차례에 걸친 학술대회의 도시 및 인구분과 역시 발표 논문이 매우 적으며 참여율은 더 더욱 낮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에서 인구학이 처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인구관련 정책을 입안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구학자들의 역할이 타 학문 영역 전공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그 결과 인구학자들의 전문지식이나 자문이 필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인구학자들의 참여가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관련 분야 공무원들 및 정책결정자들의 인구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되지만 이 역시 인구학에 대한 사회의 이해를 다져오지 못한 인구학 내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다섯째, 행정기관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각 대학에 공문을 발송할 때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는 인구학 전공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구학 전문가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정책자문에 인구학 전문가로서 참여할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

다. 여섯째, 대기업을 비롯한 사적 영역에 있어 인구학의 전문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 그 결과 이러한 사적 영역에서 인구학자들이 능력을 발휘하거나 취업할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일곱째, 사회학을 비롯한 여타 근접 사회과학 내 학문 분야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 인구학의 국제화 수준은 크게 낮다. 특히 국내 인구 현상을 해외에 소개하고 해외의 인구학 일반 이론과의 접목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고 형성하고자 하는 학문적 노력이 거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전반에 걸친 인구학에 대한 인식부재에 기인하며 그 결과 인구학 전공자들의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었고, 일자리의 부족은 인구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후학들이 줄어들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여 왔다. 이러한 악순환은 궁극적으로 인구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부족으로 귀결되며 인구학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지역 및 국가에 순기능적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V. 활성화 방안 모색

지금까지 논의한 바 있는 한국사회의 인구학의 실태와 문제점을 토대로 인구학을 활성화 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인구학회가 중심이 되어 관련 기관 방문, brochure 제작 및 배포, informal network 구축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학회 차원에서 유관 중앙 및 지방정부를 방문하거나 공문을 발송하여 행정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데 인구학적 지식과 기술이 가지는 장점 및 필요성을 알리고 각종 위원회 활동에 인구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가야 한다. 셋째, 초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구학자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넷째, <한국인구학회>에서는 초등, 중고등 학교 재학생들이 인구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구변동이 개인, 지역사회 및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학교인구교육 활성화의 노력을 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한다. 이 네 가지 방안은 결국 한국인구학회의 정치력의 강화와 관련이 큰데, 인구학이 순수학문이

면서도 동시에 응용적인 요소를 함께 포함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정제, 재계, 그리고 행정계의 관련 인사나 조직들을 방문하고 인구학의 필요성과 실용성을 이해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학에 인구관련 과목 개설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특히 인구학 과목을 개설하고 있지 않은 주요 대학 사회학과 관련 교수들에게 인구학 개설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인구학 전공교수가 없는 우수대학들의 사회학과에 인구학 전공자들을 초빙하도록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인구학에 배타적인 사회학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한국인구학회〉 차원에서의 강의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국인구학회〉에서 교양 수준의 인구학을 강의할 수 있는 강사진을 발굴하고 강의에 필요한 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특히 순수학문으로서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이 다분한 인구학의 특징을 강조하여 많은 학부생들이 인구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동시에 인구학이 취업 등 사회활동을 위한 실용적인 준비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섯 번째 방안이 바로 응용인구학(Applied Demography)의 활성화를 통하여 인구학이 사회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응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구학에 대하여 우호적인 인식의 확산을 유도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한국인구학회〉 차원에서 응용인구학 워크숍을 개최하여 인구학의 저변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일곱째, 〈한국인구학회〉에서의 발표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국인구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대하여 한국인구학회지 게재에 우선권을 주는 것도 〈한국인구학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다학제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도 〈한국인구학회〉 학술대회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데, 특히 인접 학문분야의 우수한 연구 업적을 초대하거나 반대로 인구학자들도 인접 학문분야 학술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한국인구학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여덟째, 〈한국인구학회〉 차원에서 인구학 전공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구학 전공자들의 인재풀을 확보함으로써 인구학자들의 구인과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인구학자 개개인은 물론이고 〈한국인구학회〉는 국제 교류의 필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인구현상이 한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 하에서 인구학의 학문적 국제교류는 필수적이다. 국제교류는 두 가지 차원으로 달성할 수 있는데, 하나

는 학술지를 통한 교류이고 다른 하나는 학술대회를 통한 교류이다. 먼저 학술지의 경우 국내의 인구학 연구 성과를 국제 학술지에 등재하는 것과 반대로 해외 인구학자들의 연구 논문을 《한국인구학》에 게재하도록 초대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국내 인구학 연구 성과의 국제 학술지 등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인구학회〉 차원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학술회의를 통한 교류의 경우 우리의 인구학자들이 해외의 인구학 관련 학술대회에 적극 참여하고 반대로 〈한국인구학회〉 학술대회에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학 관련 프로젝트 참여 및 인구정책과 관련한 국가기관 자문 역할이 특정의 소수 몇 명에 의하여 진행되어온 관행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인구학 전공자들의 인재풀은 훨씬 늘어나게 될 것이며 인구학은 보다 더 활성화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인구학의 저변 확대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지난 20여 년간 〈한국인구학회〉를 이끌어 왔던 몇몇 기성 인구학자들은 인구학 관련 프로젝트 참여 및 인구관련 정책자문 등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왕성한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다 보니 인구학의 저변확대의 필요성을 그다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구학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 또한 소홀히 하였음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진정 한국인구학의 위기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면 이와 같은 문제들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물론 이를 위한 신진학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은 필수적이다.

인간의 인생에서 30세가 차지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 지금까지 부모와 사회로부터 양육받고 교육받아온 것을 바탕으로 사회의 주도적인 일군으로 첫발을 내딛는 시기가 바로 30세 즈음이다. 이제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한국인구학회〉는 바로 이러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인구학이 다소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앞으로의 인구학의 위상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기회와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처럼 오늘의 위기가 미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의 모든 인구학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두섭 외 (2002) 《한국의 인구 1, 2》 통계청.
- 김두섭 · 박효준 (2006) “한국인구학 게재물의 구성과 변화, 1977-2004” 《한국인구학》 28: 219-243.
- 이흥탁 (1999) 《인구학》 법문사.
- 통계청 (2006) “장래인구추계”
- 한국인구학회 (2005) 《한국인구학》 28(1-2).
- 한국인구학회 (2006) 《한국인구학》 29(1-2).
- Asian Demographers* (2005)
-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000-2005) All research papers.
- Population* (2000-2005) All research papers.
- Demography* (2000-2005) All research papers.
- Kim, Doo-Sub (2002) “Missing Girls in Korea: Trends, Levels and Regional Variations” *Population*(English Edition) 59: 865-878.
-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Internet Homepage: Job Announcements and Funding Opportunities (http://www.popassoc.org/job_announcements.html).
-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Internet Homepage: Employment Bulletin, (<http://www2.asanet.org/pubs/eb/>)

[2007. 8. 25 접수 | 2007. 10. 30 채택]

Korean Demography 30 Years: Challenges and Prospects

Han-Gon Kim · Young-Tae Cho

Demography has grown as an independent academic discipline in Korea during past 30 years by describing and examining changes of population components such as fertility, mortality, migration, and census, and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tands on the midst of the growth. High fertility of the 1960s and 70s, which was considered as a hurdle of economic growth, particularly boosted the prosper of demography in Korea by inviting a number of non-demographers as well as demographers to population-related research projects. However, as fertility gradually decreases and becomes no-threat anymore beginning the early 1990s, social interests in demography has withered to lose its academic soils in Korea. A recent phenomenon of the lowest low fertility has revived social need and interest in demography. Unfortunately, once curtailed capacity of Korean demography is not sufficient enough to provide academic and/or practical resources now. This research is conducted to cerebrate the 30th anniversary of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and to seek ways to cultivate academic soils again and to rebuild the capacity of demography in Korea. To do this, this research examines the causes of current struggles of Korean demography by comparing its academic environments with that of America, and offers suggestions for its brighter future.

Key words: Independent Discipline, Demography, Demographer, Challenge, Issues